

정통부, IT부품 공급지도 발간

정보통신부는 국내 IT 중소벤처기업이 생산에 소요되는 핵심부품들의 공급경로를 조사한 <2006 부품 공급 지도>를 발간하고 관련기업들에게 배포한다고 11월30일 발표했다.

공급지도 책자에는 CCTV용 카메라, DMB 수신단말기, LCD 모니터, 전자태그 인식장비(RFID Reader) 등 4개 제품의 블록다이어그램(Block Diagram) 및 내부조감도, 핵심부품의 원가비중 및 공급경로, 개별부품의 제조·유통·구매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등 부품공급 관련 종합정보가 수록돼 있다.

공급지도는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뿐만 아니라 IT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koiva.or.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공급지도 책자는 구매력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IT 중소벤처기업의 원부자재 개별구매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시에도 유용한 정보자료로 제공돼 중소벤처기업이 저가의 안정적 부품 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IT 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 서승모)와 2003년부터 IT 중소벤처기업간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432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927억원에 이르는 거래를 통해 약 72억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